

남원시, 상상 자매결연 공모 '최우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확보... 소방관 대우·배려 정책적으로 실천 노력 인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 살리기 상상 우수 자매결연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남원시가 소방관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배려를 정책적으로 실천해 온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남원시는 문화·예술·산림·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여 치유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왔으며,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되어 남원시는 소방청과 지방 살리기 상상 자매결연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두 기관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는 한층 확대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운영해 온 전북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을 토대로, 올해는 소방청과 함께 전국 소방안전캠프와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추진했다.

소방안전캠프는 제복 공무원 자녀들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전국 초등학생들이 참가하여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과 화재 현장을 체험하며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소방가족 힐링캠프는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사고, 대형산불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부담을 겪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 114명이 온전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회복·휴식 지원 정책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남원시는 지역 숙박·캠핑 시설과 문화시설을 활용해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을 위한 이용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원 출신 김병중 화백의 '화홍산수'가 지난 생명의 상징성과, '폐소방복'이 표현하는 소방관의 숭고한 헌신을 결합해 제작한 열쇠고리는 '소방의 헌신은 버려지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담아내 남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 살리기 상상 우수 자매결연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원형 상상 협력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저스피스 재단과 소리 문화 기반을 활용한 소리치유콘텐츠를 개발,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프로그램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순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해 남원시가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진심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관의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와 지속적인 회복지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방가족 회복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의결특위, 집행부 예산안 송곳 검증 나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는 이번 심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프라 지원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농업 보조금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양주영 의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인 성수-임실 도로 등에 열선 설치를 필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시 소규모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3평형 지원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요구했다.

김종규 의원은 "기도등 설치 및 보수 예산과 주민 안전보험 보장 한도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제지리결연"이라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예산을 최우선으로 행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희 의원은 "일제강점기 1년간 남부하는 지방세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군은 농공단지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으로 5억 원을 대신



남부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장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중 의원은 "홍고추 출하 장려금을 kg당 200~30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아울러 "오수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시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 형평성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관용 차량 구입 등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문 의원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 농업인을 위한 편의 지원과 다문화 가정의 고향 방문 지원 등 수요가 많은 복지 사업을 추경에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진충영 기자

남원시,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추진 본격화

남원시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240억원) 규모의 남원시 대신면 윤교리 일원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남원시는 지난 15일 남원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주)케이티팜웨일리 대표 오창석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상생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삼자간 사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두 담겨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버스 승강장 옆 편의시설 문제 해결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요천마을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버스 승강장 옆 편의시설 문제를 신속한 행정협의를 통해 해결



하며 환영받았다. 이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해당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하도록 요청했으며, 결과 주민 요구가 반영돼 승강장 의사 설치가 완료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남원시가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주생면 농장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주생면 한 농장에서 AI의심 신고가 최초 접수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H5N1 고병원성으로 15일 최종 판정. 이에 시는 15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개최, 감염축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원시 협업부서, 행안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처리 △추가 확산 차단에 필요한 세세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농가가 이행해야 하는 소독, 방역을 매일 실천하도록 일선 읍면동에서 행기도록 영상회의를 통해 전파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발생 농장 총계 41,000수m 전량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59개 농가의 전면 이동제한을 명령했으며, 이밖에 시는 농장 통제와 방역대 내 정밀검사를 진행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순창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난방·전기 사용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 취약요인을 줄이기 위한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소방서는 겨울철 반복 발생하는 전기·난방 화재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농촌마을과 화목보일러 사용주택, 축사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안전 인식 강화에도 나섰다.

순창소방서는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디저트 '순창콩이빵' 정식 출시

순창군이 지역 농산물인 가루쌀과 밥을 활용해 개발한 지역 디저트 '순창콩이빵'을 정식 출시하며, 지역 농업과 미식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전략 상품을 선보였다.

'순창콩이빵'은 순창 장류의 핵심 재료인 콩과 발효문화에서 착안한 스토리를 담은 디저트로, 고소한 콩앙금이 밥과 호두 등 견과류를 더해 풍부

하고 조화로운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부드러운 민주 반죽 속에 아몬드크립을 더해 달콤함과 담백함을 동시에 살린 콩이가 특징이다.

브랜드 메시지만 "순창의 정성을 한 입에 담다" 역시 순창의 전통 정문화와 지역성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제품의 정체성과도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진다.



순창군은 이번 출시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로컬 디저트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미세먼지 저감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

지 저감 실적과 계절관리제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비상저감조치 이행,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계절관리제 이행 등 7개 분야 28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임실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 미세먼지 관리 중

합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행정의 노력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며 완성됐다. 군은 '기후위기 대응 그린리더! 임실N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447.7천톤) 8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충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토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원 광통부(廣通府)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